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5-13, 흠정역]

5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세 개를 빌려 다오. 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 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7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11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12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13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1.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주신 위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늘 왕국이 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후하신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용할 양식’과 밀접히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좋은 선물들 [13절],’ 즉 물질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요롭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일반적 은사 [General Providen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지속적으로 창조의 선한 목적을 이루며 존재하도록 주시는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주신다고 이 일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45]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반적 은사는 창조하셨을 때에 우주 만물에 부여하신 자연의 법칙들[natural laws]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제자들도 신선한 공기로 숨쉬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땅에서 나는 소출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보내기를 거부한 이집트의 바로 왕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리신 일반적 은사들을 특별한 저주들로 만드셔서 온 이집트에 그 피해가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사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죽음의 저주가 악인들에게 올 때에는 그들이

이생에서 즐겼던 하나님의 일반적 은사들이 모두 제거되어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저주의 장소에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란 그들이 이생의 축복에서 영생의 시간에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매우 특별한 은사들로 옮겨가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즐기게 될 특별한 은사는 이 땅에서 즐기는 일반적 은사와 심지어 특별한 은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9]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반적 은사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특별 은사 [Special Providence]'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삶에 선택적으로, 특별하게 관여하여 마련해 주시는 은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먹이고, 마련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총애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도움과 혜택과 선물을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5-6]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씨 곧 그분의 택하신 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그리할지어다.

[누가복음 12:24, 27-28] 24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27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28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의 왕국을 유지하고 확장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훌륭한 역사들을 그의 자녀들이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아직도 온 세계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은사들은 그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특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복음 말씀을 전함으로써 불신자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들어오도록 권유하기 바랍니다.

2.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10절]”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훌륭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해야 하는 기도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하며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6절 이하에서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밤중에 이웃 친구에게 찾아가 빵 세덩어리를 빌리려 사정하는 사람에 관하여 읽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에게 찾아온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밤중에 빵을 구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자고 있는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있지만,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구하므로 마치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것처럼 여기고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하여 마치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암시하신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8절].”

다음으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빵이나, 생선이나, 계란을 구하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후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물질적, 자연적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한다면 사람들끼리도 ‘좋은 선물들’을 서로 주고 돕는데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지 않겠느냐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욱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는 주로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 기도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병 들었을 때에 낫게 해달라는 간구 등인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것을 요청하는 기도는 반복해서, 또는 걱정과 근심에 차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백성이므로 들에 나다니는 동물들이나 새들이나 들꽃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며, 이런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형이하학적인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시하지 말라는 질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적, 신체적 필요에 대한 기도보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번성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도록, 그분의 의가 교회들에서 밝고 확연히 빛나도록 더욱 간절하게, 더 많이, 더 오랫동안 기도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6:7-8]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31-33]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 엄마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하면 엄마는 그 아이를 야단 칠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을 기꺼이 주실 것인가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요청을 가능한 들어 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서보다 하늘의 아버지 [Heavenly Father]로서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요청사항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환영하시며,

자신의 선한 뜻과 계획 안에서 그 요청 사항을 기꺼이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습관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3.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우선 순위로 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주,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기뻐하시며, 이 대화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가르치고 계심을 눈여겨 보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보좌에서 일어나 행동을 취하십니다. 8절의 의미를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8 절].”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합당한 기도 요청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매우 작은 씨앗인 겨자씨에 비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매우 큰 믿음,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일이라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사악한 세력들을 옮기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도로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과 권위를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7:20]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을진대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 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 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사도 야고보 역시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며 우리의 요청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심 없이 구해야 한다고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흐지부지한 기도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계획하신 사업들이 우리가 사는 나라들에서 그리고 온 세계에서 성취되기를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개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확연히 나타내어 지도록 믿음을 가지고, 꼭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5-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